단일후보 당선, 종단적 공감대 모인 결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무투표 당선 첫 사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스님은

계파 · 정치 매몰없이 두루 원만
다양한 소임으로 종무행정 경험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에 단독후보로 출마한 진우 스님〈오른쪽 사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격심사를 통과하면서 무투표당선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진우 스님은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선거절차 없이 총무원장에 당선된 첫 사례가 됐다. 선거인단 선출 등 선거를 위한 일련의 절차들이 생략됨에 따라, 애초 선거일로 예정됐던 9월 1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증 교부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 종단 체제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선거를 관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종무기관도 매순간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절차 속에서 원칙과 기준을 정하기 위한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과거 경선구도에서 각 후보들이 치열하게 선거운동에 나서 공약을 홍보하는 시기지만, 이미 당선자가 확정된 이례적인 상황에서 선거캠프측도 고민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대책위원회가 사실상 인수위원회 혹은 준비위원회 형태로 구성되는 것도 새로운 변화다. 무투표 당선은 확정됐으나 당선증 교부 및 원로회의 인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당선인으로서 공식행보를 본격화하기도 조심스럽다. 이에 진우 스님은 지난 8월 14일 상징적으로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와 원로의장 대원학산 대종사를 예방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행보만 이어가는 상황이다.

불교계 분위기는 "낯설지만 선거과열로 인한 혼란보다는 훨씬 낫다"는 반응이 많다. 일부, 경선구도에서 각 후보가 종책공약과 비전을 제시했던 활발한 모습이 사라져 아쉽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총무원장 선거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선거문화보다는 각종 논란과 무분별한 의혹 제기, 금권선거 논란 사례가 더 많았다는 점에서 진우 스님의 무투표당선이 향후 종단 선거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단독후보의 무투표당선은 사실상 진우 스님에 대한 종단적 공감대의 결집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진우 스님의 후보등록 직후 선거인단인 중앙종회 5개 종책모임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지지선언을 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에 앞서 원로 · 중진 스님들을 중심으로 선거혼란 최소화를 위해 합의추대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모였고, 8월 4일 교구본사주지협의회도 "제 37대 총무원장 선출은 후보자 난립으로 인한 분열과 비방이 아닌 수행과 포교가 검증된 단일후보로 추대되기를 간곡히 희망한다"며 합의추대에 동의하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검증된 단일후보에 대한 사실상의 합의추대를 통해 선거혼란을 최소화하고 종단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길 바라는 종도들의 바람이 모인 상황에서, 당시 교육원장이었던 진우 스님은 일찌감치 '검증된 단일후보'의 유력인사로 거론됐다.

진우 스님이 단일후보로 대두된 데에는 특정 계파 · 정치에 매몰되지 않고 두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데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다는 시각이 나온다. 또한 2012년 파행으로 논란을 빚은 백양사 사태 당시 주지 소임을 맡아 혼란을 수습하고 정상화를 이끌었고, 前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갑작스런 사퇴 이후에는 권한대행을 맡아 종단 안정에 기여한 이력도 강점으로 분석된다.

백양사 정상화 후 2년만에 주지직을 내려놓은 후, 2015년 조계종 재심호계위원을 시작으로 중앙종무기관 소임을 두루 거쳤다는 점에서 종무행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도 기대요인이다.

진우 스님은 2017년 총무원 사서실장에 임명된 후 호법부장과 기획실장, 총무부장, 불교신문 사장 등을 역임한데 이어, 2019년에는 교육원장으로 취임해 승가 인재양성의 한가운데서 종단 교육종책 개편 등을 통한 변화를 이끌어 왔다. 특히 진우 스님은 교육원장으로서 출가자 감소에 따른 학인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기본교육기관의 개편도 추진했다. 진우 스님은 종무행정 뿐 아니라 사찰 종무에도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9년부터 담양 용흥사 주지로 대웅전을 비롯한 전각불사를 통해 사격을 높이는 등 사찰일선 주지로서 불사와 포교에 매진해 온 데 따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장점들이 모여 총무원장 단독후보로서 진우 스님의 당선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이에 중앙종회 5개 종책모임은 지지선언에서 "진우 스님은 수행과 포교가 검증되며 종단 발전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이력을 가진 공심 있는 후보"라며 "수행과 교화를 본분으로 사회와 국민을 위해 정진해 온 진우 스님이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여법하게 선출돼 종단과 사회에 희망을 전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불교계 안팎으로 첫 단일후보 당선인 진우 스님에 대한 기대감이 모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진우 스님은 "단일후보로 지지해 주신데 대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한국불교의 당간지주를 세워온 수많은 스님들이 시대마다 이끈 소명의식과 수범한 공덕의 토대 위에서 한국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쓰겠다는 신념으로 종도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 조계종 예방

8월 17일 원행 스님에 인사
"4년 종단협 잘이끌어 감사"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과 총무원장 법명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임기 중 한국불교 발전을 일군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관음종 홍파 스님과 법명 스님은 8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지난 4년간 추진된 한중일 · 한일불교 교류를 위한 원력에 감사를 전했다.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은 "종단협 수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지난 4년간 코로나 사태 등 혼란한 상황에서도 수행자로서 종단협을 잘 이끌어주셨다"며 "스님의 역할이 적지않았기에 임기만료를 앞두고 종단협 여러 스님들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원행 스님은 "종단 간 화합과 협력은 물론, 특히 한일불교교류에 대해 관음종이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며 "코로나 사태로 열리지 못한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와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등을 잘 준비해 내년에 성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예방에는 사회부장 원경 스님, 종단협 사무총장 도각 스님(관음종 총무부장), 사무처장 진경 스님이 배석했다.

송지희 기자

승려복지회 · 보리수요양병원 '종단 지정 의료기관' 재협약

8월 17일 입원진료비 감면
"불교병원 편안함으로 케어"



조계종 승려복지회와 의료법인 동행의료재단 보리수요양병원은 8월 17일 종단 지정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삼혜)와 의료법인 동행의료재단 보리수요양병원(대표이사 현법)이 8월17일 김포 보리수요양병원 1층 로비에서 종단 지정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리수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조계종 스님들은 외래진료비와 입원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는다.

협약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일방의 해약 통보가 없는 한 자동연장 함으로써 스님들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승려복지회와 보리수요양병원은 2016년 협약을 체결했지만 법인 대표자 교체와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협약이 유명무실 됐었다. 그러다 이날 다시 종단 지정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보다 많은 스님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승려복지회장 삼혜 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은 협약식에서 "승려복지회와 보리수요양병원의 지정의료기관 협약은 좀 더 많은 스님들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취지"라면서 "보리수요양병원 이사장 스님 이하 원장,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모든 관계자들이 스님들이 내원하며 불교병원에 왔다는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케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법 스님은 인사말에 앞서 보리수요양병원에 대해 불교의 자비사상 구현이라는 미션아래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 △함께하는 병원 △환자 중심의 병원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의료진을 구축하고 안락한 시설을 유지하며 최적의 진료와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약은 보리수요양병원이 조계종 핵심종책사업인 승려복지제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약사여래 원력병원'으로서 환자들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7월 개원한 보리수요양병원은 김포 용화사 바로 앞에 위치했다. 부지 10만 3359㎡. 연면적 4529.49㎡,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37실 173병상을 갖추고 있다. 일반외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 3명, 한의사 1명 등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한다. 집중치료실에는 인공호흡기가 비치돼 있어 중증 환자들도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감염에 취약한 CRE, VRE 환자를 위해 격리 병동도 운영한다.

임은호 기자

대통령실 불자회에 "전통문화 계승" 당부

원행스님. 8월17일 임원진 예방
초대 회장은 이진복 정무수석



원행 스님을 예방한 이진복 회장과 임원진.

윤석열 대통령실 불자회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

대통령실 불자회는 과거 청와대 불자회로 운영됐지만 현 정부체제에 맞춰 공식명칭을 변경하고 이진복 정무수석을 초대회장으로 임원진을 확정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불자회장은 8월 18일 임원진과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 이 회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불교계와 소통을 기반으로 전통문화 계승보존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많은 가르침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허성우 대통령실 불자회 부회장(국민제안비서관), 조규보 운영위원장(국민제안비서관실 행정관), 신도균 사무국장(종교다문화비서관실 행정관) 등 임원진이 함께했다.

원행 스님은 이 회장에게 "대통령이 전통문화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약 등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통문화 계승보존을 위해 그동안 필요성이 인정됐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현실적인 개선과제들이 적지 않은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진복 대통령실 불자회장의 공식취임법회는 9월경 서울 조계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희망의 불교,
미래의 불교를 함께 열어갑시다.

백만원력 결집불사

-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준공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 불교요양원 건립
-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기금 조성
- 위례 상월선원 신축불사
- 나눔 및 교육기금 조성

대한불교조계종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준공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대한불교조계종 검색

NAVER daum

www.buddhism.or.kr

▶매일 발우저금통에 보시

▶정기후원(CMS) : 신청서 또는 전화신청

▶후원계좌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문의전화 02)6273-0108, 0109

• 모아진 발우저금통은 재적사찰 또는 문의전화로 상담해주세요.
•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기부재단으로 백만원력결집 공식 모금창구입니다.